

신안 천일염 중국 수출 '물꼬'

저장성에 3년간 10만t 협약

신안 천일염이 미국에 이어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전남도는 25일 신안군청에서 신안군, 중국 저장성 주산원동수입해염제품책임유한공사와 3년간 10만t 규모의 천일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안 천일염은 첫 물량으로 가공용 20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약 5만3000달러 어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앞으로 3년간 10만t을 수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중국 현지 방문해 현지 바이어를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들 바이어를 신안으로 초청,

비금도 현지 시장과 실무협의를 거쳐 협약을 맺게 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신안군 임자면 천일염 생산업체 마하탑이 천일염 2.6t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수출했다. 마하탑은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얻으면 연간 50t 이상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량은 2016년 기준 29만3000t으로 전국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천일염 가격 하락으로 생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천일염 수급 조정과 폭락한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천일염은 저염식 문화 확산 등으로 소비세가 정제된다, 가뭄·폭염으로 생산량

이 크게 늘어 가격이 폭락했다. 천일염 가격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수요가 폭등했던 2011년 20kg들이 1포의 평균 가격이 1만1222원에서 지난해 3200원, 올해 2477원으로 6년 전 대비 22%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생산원가가 6000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판매가격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영세 생산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최근 중국과의 외교 갈등 상황에도 이같은 수출협약을 맺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꾸준한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 분야도 수출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분관 접견실에서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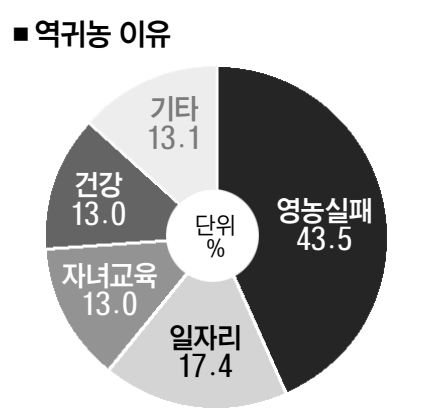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0.2km²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남도는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0.2km²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년간이다. 상포지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곳으로 개발 목적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 전남도는 또 담양군 담양읍 첨단 문화복합단지 조성지 7.78km²에 대해서도 1년간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이곳은 2014년 10월부터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담양군 등은 2020년까지 전원주택 772가구, 공동주택 680가구 등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라며 "부동산 거래 동향을 수시로 살펴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지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귀농·귀촌 100명 중 7명 '역귀농'

영농 실패·자녀교육 등 영향

귀농·귀촌인 100명 중 7명이 도시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구축한 귀농·귀촌 패널 1039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적 조사한 역귀농·귀촌 실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귀농·귀촌인의 88.8%가 농촌에 정착해 살고 있고 6.8%는 도시로 돌아갔는데, 역귀농 이유는 '영농실패'(43.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자리'(17.4%), '자녀교육'(13.0%), '건강'(13.0%) 등을 꼽았다.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는 2차 귀농·귀촌 비율은 4.3%였다. 이들은 '품목 변경', '농지 주변으로 이사', '농지 획득' 등 더 나은 영농조건을 찾아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별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귀농·귀촌인



일수록 계속 거주(8.0%)나 도시로의 이주(5.4%)보다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24.4%)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30 세대 귀농·귀촌인은 중·노년층과 달리 농촌정착에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도시로 돌아가기보다는 다른 농촌으로의 2차 이주를 시도함으로써 농촌에 정착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민은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금 국민은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사법부 수장에 흑시라도 공백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국회와 야당이 3권분립 정신을 존중해 덕분에 공백 없이 취임하시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 개혁은 대통령·정부·국회가 감당할 몫인데,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

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써 국민과 사법부 내부에서 신임 대법원장에 기대가 큰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때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 아주 든든하게 생각됐고 모든 사안에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시면서도 침착하셔서 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사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중한 안

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생산적인 정치를 펼치는 방안 등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께 국가적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호명, "내실 있는 대화 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여야 5당 지도부와 의 회동을 계기로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아 안보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복막전 아파트 분양시장' 1면서 계속

'점프마켓'은 외부의 '뺏다방 세력'이 주택계약합의자금을 300만~500만원에 구입한 후 3개월 전에 광주로 전입,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 집중적으로 '작업'에 나서 는 것을 말한다. 하남3지구, 동구 용산지구, 남구 효천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는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 우선 그 대상이 된다. 외부 뺏다방-지역 뺏다방-지역공인중개사로 아파트가 넘어가면 서 프리미엄이 최대 1억원에 이르게 된다. 5~10명이 한 팀을 구성해 분양회사로부터 아파트 세대수의 절반을 받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한 공인중개사의 증언이다. 광주의 김○○씨는 분양아파트마다 나타나 100세대 이상씩 사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동산계약서 원본을 현금거래하는 방식으로 매매제한이 있는 아파트도 불법거래되는 등 광주 아파트 시장은 온갖 불법과 탈법이 뒤섞여 있다. 투기세력들이 새 아파트를 씹으려면 서 집없는 서민이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주택자들은 6개월마다 재당첨이 가능해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비밀비재해, 특정지역 거주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독점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

다. 광주의 한 아파트의 당점자를 분석한 결과 수만지구 거주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경우도 있었다고 A건설업체 관계자는 털어냈다. 건설업체, 분양회사, 공인중개사 등도 모두 이 불법·탈법 청약시스템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B건설업체 분양 관계자는 "광주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신규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의 청약률은 이상하게 높다"며 "시장에 투기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회의장에 신인령 전 이대 총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 부위원장 김상희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에 장병규씨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의 법학자이자 대학 총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깊은 학식을 겸비하고 있어 교육 분야의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대구 출신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

회 위원장은 20대에 창업한 네오위즈를 시작으로 첫눈, 블루홀 스튜디오, 베틀그라운드 등을 연속으로 성공시켜 IT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국내 IT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우상이자.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성과 환경·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적임자로 여성 인권보호와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9월분 재산세 납기 10월 10일까지 연장

광주시는 애초 30일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 또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은 13일까지 연장한다. 광주시는 25일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장기간 추석연휴로 인해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중에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